

교육·산업 동반 성장 견인... ‘광주RISE’ 사업 공식 출범

17개 대학·기업 등 참여 비전 선포식...산학 혁신 생태계 구축 나서
지역 산업 연계한 인재 양성 등 집중...글로벌 혁신도시 도약 구상

광주시와 17개 대학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만들기ye 나섰다.

광주시는 3일 전남대에서 광주RISE 비전 선포식을 열고 광주RISE 사업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RISE 사업은 단순한 대학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역·대학·산업·연구·청년·기업·시민이 참여하는 통합 혁신 생태계를 지향한다. 대학 지원의 일부 예산과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경쟁력을 연계하는 새로운 체계로,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17개 대학 총장, RISE사업단장, 지역 기업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교육·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광주RISE 공동위원장인 강 시장과 이근배 전남대 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됐고, 두 사람은 지역 혁신과 대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광주의 미래 성장을 향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17개 대학의 RISE 추진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과 함께, 각 대학 RISE사업단 대표들로 구성된 광주17개대학RISE 사업단협의회의 비전 선언문 낭독이 이뤄졌다.

선언문에는 광주형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평생학습과 인재양성 체계 확립, 산업 혁신 및 지역 현안 해결, 청년 정주형 도시 조성, 글로벌 혁신도시로의 도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비전이 담겼다.

또 중앙RISE위원회 박철우 교수의 특별강연과 RISE 단위과제별 협의체 킥오프 회의가 열려 향후 과제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

졌다.

광주시는 4대 프로젝트와 14개 단위과제별로 17개 수행대학을 선정했다. 총 65개 세부사업에 773억1000만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5년간 RISE 사업을 추진하며, 모빌리티·에너지·반도체·인공지능(AI) 등 광주 주력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에 집중한다.

향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배출하고 창업기업 3만5000개를 육성하며, 지역 대학 졸업생의 정주 취업률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광주시는 총출하고 현실성 있는 RISE 기본 계획으로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비 217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RISE 사업의 핵심인 인재 양성 사다리는 초·중·고부터 대학, 지역 기업 취업까지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AI와 친환경차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교육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이 광주를 창업 실증 무대로 삼아 정착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대학과 산업계의 긴밀한 연계를 바탕으로 교육과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광주를 교육 혁신 기회도시이자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비전 선포식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기업이 성장하는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광주시와 17개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광주를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혁신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치단체와 대학이 지역발전을 건인하는 ‘광주라이즈(RISE) 비전 선포식’이 강기정광주시장과 광주지역17대학 총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에서 열렸다. <광주시 제공>

마늘·양파 적정 재배면적 관리...전남도, 농산물 수급 안정 총력

재배의향 면적 신고 등 당부

전남도가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남도는 3일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양파 광역 주산지 협의체와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재배의향 조사 참여와 국내산 종자 사용을 당부했다.

이날 열린 주산지협의체는 내년도 마늘, 양파 육묘철을 앞두고 적정 재배면적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마늘·양파 주산지 시군과 생산자단체와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산 마늘·양파의 육묘철을 앞두고 적정 재배면적 관리 방안을 논의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025년산 수확기 양파의 가격 하락과 인건비 상승의 영향으로 내년도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5.3% 감소한 1만 7247ha로 전망되면서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파 재배면적이 감소하면 수급 불안정으로 양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자 기피 등으로 연결돼 농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마늘은 2025년산 마늘 가격이 강세를 이루면서 올해 재배면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12일까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마늘·양파 수급안정위원회가 실시하는 ‘마늘

재배 의향조사’ 적극 참여해 줄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이와함께 값싼 중국산 마늘 종자 사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국산 종구 사용 장려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국산 종자는 국산 종자에 비해 상품성이 낮고 수확량이 적은 데다 이상기후 등 극한 기상에 취약하다.

마늘 재배 의향 조사는 ‘마늘협회 자조금 통합포털 시스템’에 접속해 마늘 재배 농지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은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044-868-6332)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농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 토론회

빛그린산단 내 건축 불허는 재산권 침해 vs 난개발 우려 격론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 정책토론회에서는 빛그린 국가산단 주변 계획관리지역 내 창고시설 건축 허용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이번 토론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급변한 인근 지역의 환경과 산업 여건에 맞춰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 취지를 설명한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빛그린산단 조성으로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과 현실이 괴리된 만큼 창고시설 전면 불허는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정주환경 보전은 세부 규제와 행정조치로 관리함으로써 산업 활성화·투자 촉진·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변국일 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창고시설 전면 허용은 난개발과 정주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며 “산업단지 내 물류 수요는 여유 용지를 활용한 계획입지 유도과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제한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신중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수기(광산구 5선거구) 시의원은 “2003년에 도입된 계획관리지역 규제가 산업·물류 중심으로 변모한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2014년 국토계획법에서 창고시설 건축을 규제하는 조항을 폐지해 해당 사항을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상태”라며 “타 시도 사례나 빛그린산단 조성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볼 때 광주시의 원천 규제는 과도하며, 이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외국인 유학생 광주 생활 적응 돕는다

시, 19일까지 참가 모집...생활안내·관광지 소개 등

외국인 유학생이 광주에서 생활 적응과 안전, 지역 문화 이해를 한 번에 갖추도록 돕는 통합 오리엔테이션이 열린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외국인 유학생 교육’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 아메! 광주는 처음이지?’를 주제로 진행하며 광주 생활 안내, 주요 관광지 소개, 외국인 유학생 우수 활동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강의한다.

시는 입학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묶음으로 제공

해 초기 적응 속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즐거운 캠퍼스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신청은 19일까지다. 재학 중인 대학을 통해 접수하거나 온라인 구글폼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광주시 교육청년국 대학인재정책과 인재양성팀으로 하면 된다.

시는 유학생 서포터즈 운영과 ‘유학생의 날’ 개최, 외국인 유학생 지원계획 수립 등 정책을 병행해 왔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학·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을 강화해 정주 여건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소나무재선충병 급증...지난해보다 2배 ↑

올해 4만456그루 고사

전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 급증에 따라 수종 전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4만456그루가 고사했다. 지난해(2만 187 그루)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여수에서 1만7196그루, 순천에서 1만8331그루 등 피해는 동부권에 집중됐다. 피해 규모는 15개

시군에 14만2000ha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여수시 등 8개 시군 3678ha를 대상으로 수종 전환 등 방제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비 128억원과 도비 16억원 등 183억원을 들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소나무를 베어내 자원화한 뒤 산림 재난에 강한 수종을 심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오는 10월까지 내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 설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